

東洋医学과 獸医針医学(7)

徐斗錫*

4) 針治療의 四診法

東洋医学의 診察法은 望診, 聞診, 問診, 切診 등의 네종류의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四診法이라고 한다.

(1) 望診

환측을 육안적으로 관찰해서 病証의 情報를 알아내는 診察法을 望診이라고 하는데 診察者의 視覺에 의해서 診斷하는 方法으로서 西洋医学의 視診과 같다.

환측의 粘膜과 皮膚의 色採를 靑, 赤, 黃, 白, 黑의 五色으로 分類하여 病証의 陰陽, 虛實, 寒熱 등의 証을 판단하는 方法이다. 動物의 顔面과 体表面은 被毛로 덮혀 있기 때문에 粘膜과 下腹壁과 内股部 등의 有色部位를 觀察하나 色調의 變化에 의한 診斷이 쉽지 않다. 人医系統에서 望診을 많이 응용하고 있는 診斷法으로서 비중이 높으므로 參考하기 바라면서 설명한다.

靑, 赤, 黃, 白, 黑을 五色이라고 하는데 五色의 順序는 五行學說의 木, 火, 土, 金, 水의 順序와 동일하며 陰과 陽의 經絡에 對應한다고 한다. 즉 望診에 의한 色採의 變化에 따라서 陰陽, 虛實, 寒熱 등의 証을 판단하는 方法으로서 靑은 肝과 胆, 赤은 心과 小腸, 黃은 脾와 胃, 白은 肺와 大腸, 黑은 腎과 膀胱 등의 어느 곳에 病証이 있음을 나타내는 色採라고 한다.

① 望診의 要領

肥瘦狀態와 氣色, 血色의 潤燥, 光澤, 緊張, 弛緩狀態 등을 관찰하여 營養狀態, 體質, 陰陽, 虛實, 寒熱 등을 판단하고 그의 証에 기준해서 補 또는 瀉를 적용해서 施術하여 陰과 陽의 調和를 助成해 준다.

② 顔色 및 粘膜色과 光澤

假名安驥集卷二의 五輪碎에 다음과 같이 記述하였다.

五輪碎表

肝木胆腑眼筋爪	木脉靑色東困形
心火小腸舌血毛	火脉赤色南三角
脾土胃腑唇肉乳	土脉黃色中四角
肺金大腸鼻皮息	金脉百色西半月
腎水膀胱耳骨齒	水脉黑色北円形

要略해서 설명하면 東洋医学에서는 色採는 肝이 主張하는데 靑色은 肝氣에서 생기고 赤色은 心氣에서 생기며 黃色은 脾氣에서 생기고, 白色은 肺氣에서 생기며, 黑色은 腎氣에서 생긴다고 한다. 따라서 顔色 및 可視粘膜과 皮膚面에 나타나는 色의 종류와 變化에 의하여 病証이 있는 臟腑의 陰陽, 虛實 등을 診斷할 수 있다고 한다.

色脈의 면에서 관찰할때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

色脈을 설명하면 靑色은 肝經에 속하므로 肝氣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며 顔面에 靑色이 돋을때는 肝과 胆 그리고 이의 經絡에 虛實의 疾

*全南大学校 農科大学 獸医学科

色脈表

紅 色	心氣에서 생기는 健康한 色이다.
紫 色	心腎 및 心肝의 氣에서 생기는 虛損의 色이다.
暗 色	黑色을 닮아 腎氣에서 생기는 虛損의 色이다.
濛 色	靑色을 닮은 것으로서 肝氣에서 생기는 놀라운 色으로서 虛損의 色이다.
滯 色	皮膚와 肉과의 中間色으로서 腎이나 肝의 虛損色이다.

病이 經過中이라 하고, 紅色(赤色)은 심경에 속하므로 心氣로 부터 생기며 顔面이 항상 紅色을 띄울때는 心, 腸, 心包, 三焦 및 이들의 經絡에 虛実의 疾病이 經過中이라고 한다. 黃色은 脾經에 속하므로 脾氣에서 생기며 顔面이 항상 黃色인 때는 脾와胃 그리고 그의 經絡에 虛実의 疾病이 經過中이라고 하며 白色은 肺經에 속하므로 肺氣로 부터 생기며 顔面이 항상 白色을 나타날때는 肺와 大腸 그리고 그의 經絡에 虛実의 疾病이 經過中이라고 한다. 黑色은 腎經에 속하므로 腎氣로 부터 생기며 顔面이 항상 黑色을 띄울때는 腎과 膀胱 그리고 그의 經絡에 虛実의 疾病이 經過中이라고 한다.

③ 顔色에 의한 診斷

五行學說의 色調에 의하면 靑과 火의 色은 紅(赤)이고 土의 色은 黃이며 水의 色은 黑이고 金의 色은 白인데 顔色이 사람마다 다르다고 한다. 木行의 形은 重厚하고 넓으며 水行의 形은 肥圓하고, 火行의 形은 輕尖하고 烈(매섭다)하다고 한다. 五行에 肥瘦와 長短을 区分한다고 하나 반드시 五行中에 靑, 赤, 黃, 白, 黑의 本原에 맞추어서 精氣와 神의 맑고 흐림(淸濁)을 區別하는 것이 좋다고 하므로 木色은 靑이고 火色은 紅이며 土色은 黃이고 金色은 白이며 水色은 黑이라고 하면서 顔色은 白이 가장 좋은 色이라고 한다.

木形은 瘦直하고 顔面이 骨瘦하며 鼻修直함과 동시에 目은 細長하고 手指는 細하며 紋(指

紋)이 많고 鬚髯(수염)이 모두 淸하며 肩背는 挺直하고 色이 靑하며 氣秀한것 등은 眞의 木形이라고 한다. 火形은 紅하고 活氣가 있다. 頭長하고 尖하며 耳高하고 尖反하며 수염이 微赤하고 音聲이 焦烈하며 性이 急하여 操暴하다. 色은 鮮紅이고 神氣旺盛하며 筋骨이 露(드러나)하는것 등은 眞의 火形이라고 한다. 土形은 厚重하며 骨重하고 肉實하다. 顔面이 厚大하고 鼻準이 豐隆하며 口濶하고 唇厚하며 頤이 豐하고 腰背가 龜와 같으며 音聲이 重하고 手足이 厚하며 色은 明黃이고 氣魄이 廣大한것 등은 眞의 土形이라고 한다. 金形은 方이다. 顔面을 비롯한 全身이 白色이고 端方하며 神氣가 淸하고 蘭台挺尉(땀시)가 正하며 金의 神氣面이 넘치는 것은 眞의 金形이라고 한다. 水形은 肥圓하고 肉重하며 骨輕하고 顔面과 全身이 모두 肥圓하며 色이 玄(검고 乾燥)하며 氣가 靜한 것은 眞의 水形이라고 한다.

以上과 같이 體質과 色採와의 相生 및 相剋關係와 色採의 有無 등에 의해서 體質의 善惡을 판단하는 方法으로서 이 理論을 東洋獸醫學의 馬醫方에 응용한 假名 驥集의卷第二의 五輪碎項에 다음과 같이 記述하였다.

口色(口粘膜의色)의 形候에 關해서 四季에 口色이 紅한것은 無病(健康)이다. 春季에 口中(입안)이 靑色을 띄우면 肝의 病邪로 인한 色採이므로 治療하기 어렵고 이것이 黑色으로 변하면 治療의 可能性이 높은 所謂 水生木이라 하고 色이 白으로 변하면 治療의 可能性이 없는 所謂 金剋木이다. 夏季에 口中이 赤色인 경우는 心에 病邪가 經過할때의 病証이므로 治療하기 어렵고 이것이 靑色으로 변하면 治療의 可能性이 있으므로 所謂 木生火이나 黑色으로 변하면 治療의 可能性이 없는 所謂 水剋火이라, 秋季에 口中이 白色인 것은 肺에 病証이 經過中인 것이므로 治療하기 어려운데 白色이 黃色으로 변하면 治療의 可能性이 있는 所謂 土生金이나 赤色으로 변하면 治療불가능한 火剋金이다.

冬季에 口中의 色이 黑色인 경우는 腎에 病証

이 經過中이므로 難治이나 이것이 白色으로 변하는 것은 치료가능한 所謂 金生水이며 白色이 黃色으로 변하면 치료불가능한 所謂 土剋水이다. 四季節의 各下旬 즉 換節期에 口中이 黃色인 때는 脾에 病証이 經過中인데 이것이 赤色으로 변하면 治療可能한 소위 火生水이고 青色으로 변하면 不治이기 때문에 소위 木剋土이다.

(2) 聞 診

患者 또는 患畜의 病証에 대한 情報를 탐지하기 위하여 목소리(聲)를 청취하는 診察方法을 聞診이라고 한다. 따라서 西洋獸醫學의 聽診과 類似한 점이 많다.

患畜의 音聲, 咳, 呼吸 및 其他 모든 소리를 청취하고 診斷하는 方法으로서 五聲, 五音, 五齶 등으로 구분한다.

患畜으로 부터 풍기는 臭氣도 聞診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이것은 “齶을 청취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語感이기 때문에 개운치 않는 感도 없지 않다.

(3) 問 診

畜主에게 問議하여 病歷을 청취해서 病証에 대한 情報를 얻어내는 診察方法으로서 西洋獸醫學의 稟告와 유사한 方法이다. 問診은 主로 五味, 五液, 五勞, 五志, 五惡 등에 관한 상태를 問議하여 나타나는 現象의 症候를 總察해서 虛냐, 實이나, 陰이나, 陽이나 그리고 어느 臟腑와 어느 經絡에 속하는 証인가를 診斷하는 方法이다. 즉 五味는 酸, 苦, 甘, 辛, 鹹 등에 대한 기호상태를 問議하고 五液은 淚, 汗, 涎, 涕, 唾 등의 분비상태를 問議하며 五勞는 久步, 久視, 久坐, 久伏, 久立 등의 狀況을 問議한다. 五志는 怒, 喜, 憂, 悲, 恐 등의 感情의 起伏狀態를 問議하며 五惡은 木은 風을 惡하게 하고 火는 熱을 惡하게 하며 土는 濕을 惡하게 하고 金은 寒을 惡하게 하며 水는 燥을 惡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五行學說의 相生·相剋關係를 考察하면서 問議한다.

以上 記迷한 望診, 聞診, 問診에 의한 情報의

객관화는 여러 종류의 方法이 있으나 五行論이 生體에 관한 醫療經驗으로 부터 抽象된 生體原理의 与否에 관해서 얻어진 情報를 客觀적으로 探知해야 한다.

(4) 切 診

患畜의 身體에 손을 접촉해서 病証에 관한 情報를 探知하는 診察法을 말한다.

西洋獸醫學의 觸診과 유사한 方法이라고 할 수 있다. 切診으로 探知할 수 있는 情報는 3종류가 있는데 그의 하나는 切經이다. 切經은 經穴中의 俞穴系와 募穴系라고 하는 二系統을 中心하여 經穴을 觸診해서 探知하는 情報이다. 俞穴은 背面에서 脊椎骨의 兩側에 縱으로 位置하며 募穴은 主로 腹面의 일정한 部位에 分布되어 있다.

切診의 根據는 臟腑經絡說에서 유래하였는데 臟腑經絡說은 五臟六腑에 心包를 포함한 모든 臟器의 機能에 關係하는 十四經絡(十二正經脈과 任脈 및 督脈)의 異常現象에 관한 情報를 体表에서 觸知할 수 있다는 理論을 基礎로 해서 成立된 學問이다. 모든 經絡(經脈)은 背側을 走行하는 것과 腹側을 走行하는 두종류로 大別하는데 일반적으로 背側을 走行하는 經絡이 陽에 속하며 六腑에 對應하고 腹側을 走行하는 經絡은 陰에 속하는데 五臟과 心包에 對應한다. 陽에 속하는 經絡은 太陽, 厥陰, 小陰이라고 하는 陰과 陽이 一定한 量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二陰三陽이라고 한다. 三陰三陽에 관해서는 陰과 陽의 量的差異로 부터 氣와 血의 量이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治療의 手技 즉 針刺量의 多小를 이 差異에 준해서 規定한다.

十二經絡(正經脈) 外에 背部의 正中線을 走行하는 二개의 奇經(任脈·督脈)을 합한 十四個의 經絡上(위)에 經穴의 위치가 固定되어 있으며 이들의 經穴은 臨床的인 選擇의 基準에 의해서 다시 분류되어 있는데 經穴의 數는 사람에게 있어서 黃帝內經素問編에 365個穴이 있다고 하였으나, 354個穴이 있다고 한다. 日本의 中村氏에 의하면 經穴數는 動物種類에 따라서 일정치

않는 것으로서 牛馬는 300余個穴, 犬는 300~650余個穴이 있고, 사람은 354個穴이 있다고 한다.

經穴이라고 하는 局所가 生理學的으로 어떠한 특성이 있느냐의 与否와 어느 臟腑에 疾病이 발생하였을때 그 臟腑와 對應하는 經穴을 触診해서 파악할수 있는 情報(所見)가 나타나느냐 하는 등의 點, 이 두가지가 問題라고 思料된다.

黃帝內經의 靈樞編에는 經穴을 触診할때의 所見에 대해서 극히 간단하게 記述하였으나 現代 針醫學에서의 해석은 自覺的 또는 他覺的으로 局所에 나타나는 熱感 또는 冷感의 證明과 望診에 의하여 腫脹, 萎縮, 丘疹, 色素沈着 등을 證明할수 있고 触診에 의해서 壓痛과 硬結 등을 證明하고 있다.

以上과 같이 記述한 四診法은 各項에 의해서 生體機能의 특징적인 상태를 파악할수 있으나 望診, 聞診, 問診과 切診은 診斷理論의으로는 別個인 것으로 취급된다. 즉 望診, 聞診, 問診에서는 하나의 生體特性은 五行學說의 다섯가지의 行(木, 火, 土, 金, 水)의 基本的인 水準中에서 어느 것이든 간에 한가지로 판단할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望診, 聞診, 問診에 의해서 探知한 情報은 動物體內에서 相互間에 強力한 内部相關이 있다고 하며 患畜의 狀態는 五行의 어느 行인가에 분류할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針醫學에 있어서의 診斷은 十四個의 經絡과 結付된 범위내에서 할수있다고 思料된다.

經絡은 實質性器官인 五臟(心, 肺, 肝, 脾, 腎)과 心包 그리고 管腔狀器官인 六腑(胃, 胆, 大腸, 小腸, 膀胱, 三焦)를 합해서 十二個의 經絡系와 奇經인 督脈과 任脈을 합하여 十四個의 經絡系로 구성되었는데 動物體內的 모든 情報은 十四個의 經絡系에 集約되어 있다. 그리고 五行系, 經穴系, 脈診系 및 一般症候系 등의 情報은 機械論的인 關係에 있어서 十四個의 經絡과 診斷範圍가 結付되어 있다고 한다.

4. 補 및 瀉의 技法

東洋醫學에 있어서 針治療의 중요한 比喩는 四診法에 의해서 臟病(五臟에 속하는 臟器의 疾病) 또는 腑病(六腑에 속하는 器官의 疾病)인 가를 판단하고 어느 臟器에 무슨 病証이 있는가를 판단하여 그 病証의 陰陽, 虛實, 表裏, 寒熱 등의 不調和를 診斷한 다음에 그 不調和를 調整하기 위하여 補 또는 瀉의 方法을 적용한다.

1) 補와 瀉의 概念

補라고 하는것은 補充해서 도와준다는 뜻으로서 補方의 目的은 神氣(衛)와 精血(營)을 補充해서 助長하는 것이라고 한다. 瀉라고 하는것은 내리다 또는 떨어내다 라는 뜻으로서 빼낸다는 것을 말하며 瀉方의 目的은 邪氣(熱邪, 風邪, 寒邪, 濕邪, 鬱邪, 病原菌 등이 分心하는 毒邪)와 旺氣食毒 등을 体外로 放出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針治療를 施術함에 있어서 生命力에 障礙를 일으키는 邪氣와 瘀血 또는 極端的인 旺氣를 쏘거나 除去하는 技術과 施術하는 方法을 말한다. 그러므로 補方과 瀉方은 서로 正반대적인 方法과 技術이라고 할수 있으나 그의 本質的인 目的은 陰과 陽의 不均衡을 調節해서 非生理的인 病의 生命現象의 虛와 實을 本來的인 平衡狀態로 環元시키기 위한 相對的인 方法이며 陰陽學說을 基礎로한 治療法이다.

針灸治療의 目的은 扶正祛邪 즉 正을 扶養하고 邪를 除去하는데 있으므로 반드시 陰陽, 表裏와 寒熱, 虛實의 原則下에서 病証의 性質에 따라서 針을 選擇하고 施術하여야 補 또는 瀉의 作用을 發揮할수 있음과 동시에 針灸治療의 目的을 달성할수 있다. 黃帝內經靈樞의 九針十二原에 의하면 虛証은 補方을 施術해서 實을 補充하고 實証은 瀉方을 施術해서 實을 瀉한다고 하였으며 邪氣가 盛하면 이를 弱화시켜야 한다고 기술하였다. 針治療는 針을 刺入하는 方法에 의하여 効能이 다르므로 臨床的으로 적용할 때는 陰陽, 虛實, 表裏, 寒熱 등의 証을 精確하게 판단한 다음에 補 또는 瀉를 적용하기 때문에 針의 깊이 또는 瀉血 등의 方法을 결정한 다음에 施術한다.

2) 補 및 瀉의 手技

黃帝內經의 經脈篇에 의하면 寒熱証은 速針法을 적용해서 邪氣를 瀉하고 虛實証은 留針法을 적용하여 不足한 正氣를 補하며 虛証은 經氣가 下降한 것이므로 昇學法을 적용해서 높혀준다고 하였다. 純實証이거나 純虛証이 아닌 複雜한 証은 臟腑相互間의 相生과 相剋關係의 특징을 응용해서 한개의 經穴 또는 여러개의 經穴을 선정해서 施針(刺針)하는데 방법은 補를 먼저 작용시킨 다음에 瀉를 작용시키거나 瀉를 작용시킨 다음에 補를 작용시키든 간에 처음 부터 補와 瀉를 동시에 작용시키어 治癒할때 까지 施術한다고 한다.

元亨馬集에 의하면 補와 瀉하는 방법은 刺針한 다음에 針을 빼지않고 在側으로 捻轉(回轉)하는 동작은 補의 作用이고 右側으로 捻轉하는 동작은 瀉의 作用이므로 補가 필요할때는 補를, 瀉가 필요할때는 瀉를 작용시키어 補와 瀉의 방법을 정확하게 적용하므로서 效能을 얻을수 있다고 한다. 寒証에는 火針을 施術하고 熱証에는 生針(白針이라고도 하며 熱을 加하지 않은 針을 말함)을 施術하며 急性病証은 發病初期에 施術한다. 針의 종류 및 크기와 刺針의 깊이 그리고 病証에 따라서 治病要穴의 取穴配合(經穴

取穴의 補瀉方式

種 類	補	瀉
單 方	虛한 經絡(臟腑)의 治病 要穴만을 補한다.	實한 經絡(臟腑)의 治病 要穴만을 瀉한다.
母子相生	虛한 經絡(臟腑)과 그의 母經의 各母穴을 補한다.	實한 經絡(臟腑)과 그의 子經의 各子穴을 瀉한다.
相生相剋	虛한 經絡(臟腑)의 子經의 要穴을 補하고 剋되는 經絡의 要穴을 瀉해서 補를 강화한다.	實한 臟腑에 剋이 되는 臟이 虛할 때에는 먼저 그 經絡의 要穴을 補하고 剋하는 臟은 剋하는 經絡의 要穴을 補해서 그의 實을 瀉한다.
井營俞經合	一經絡(臟腑)의 單方的인 補方과 橫으로 여러 經絡의 治穴을 複方的으로 補한다.	一經絡(臟腑)의 單方的인 瀉方과 橫으로 여러 經絡의 治穴을 複方的으로 瀉한다.
陰 陽	背部膀胱經絡의 俞穴과 腹側募穴을 補한다. 募	背側膀胱經絡의 俞穴과 腹側募穴을 瀉한다.
總 合 穴	總穴, 合穴, 會穴을 補한다.	總穴, 合穴, 會穴을 瀉한다.

의 処方)이 合理的이어야 治療效能을 기대할수 있다. 즉 火針은 補作用하고 血針(瀉血)은 瀉作用하며 插針(針을 刺入하는 동작)은 補作用이고 提針(刺針한 다음에 針을 빼는듯한 동작으로 위로 올리는것)은 瀉作用이며 插針을 서서히 하고 提針을 빠른 동작으로 하는 것은 補作用이며 插針을 빠른 동작으로 하고 提針을 서서히 하는 것은 瀉作用이며 針을 빠른 동작으로 拔針하고 針孔(刺針口)을 손으로 눌러서 閉鎖하여 氣가 体外로 放出되지 못하게 하는 동작은 補作用이며 拔針할때 針을 左右 前後로 움직이면서 빼고 針孔을 開放시키어 氣를 体外로 放出시키는 것은 瀉作用이다.

3) 取穴의 補·瀉

取穴의 補瀉라고 하는 것은 治療에 적용하여 야할 經穴을 処方(選定)하고 施針하는 것으로서 經絡과 經穴의 關係를 陰과 陽에 의해서 病証이 經絡病인지 또는 臟腑病인가에 의해서 陰, 陽, 虛, 實의 不調和狀態를 合理的이고 自然的인 상태로 平衡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治療에 필요한 經穴을 選定해서 配合하여 補·瀉를 施術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의 方式은 다음 圖表와 같이 大別한다.

＝ 다음호 第3章 獸醫針醫學實技 ＝